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홍규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삶과 신앙을 우리의 삶 안에 본받는 복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 ◆ 견진 교리 및 견진 성사 안내
 - 견진 교리: 4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3-5시
 - 견진 성사: 5월 24일 주일 미사 (주교님 집전)
- ◆ 성모성월 야외미사 안내
 - 일시: 5월 17일(일) 오전 10시
 - 장소: Blendon Woods Metropark (Sycamore Shelter) 4265 E Dublin Granville Rd. Westerville, OH 43081
- ◆ 구역별 가정 면담
 - 일시: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황석두 구역, 이호영 구역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꾸리아 5월 회합
 - 일시: 오늘 미사 후 2시 30분
 - 장소: Parish Center

- ◆ 이호영 구역모임
 - 일시: 5월 16일(토) 저녁 7시
 - 장소: 김명호 형제님댁 (614-792-9391) 7518 Heatherwood Ln. Dublin, OH 43017
- ◆ 친교 준비 봉사자
 - 5월 3일: 최영자
- ◆ 4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50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87.00
교 무 금	\$570.71

- 교 무 금: 오은총 최예리 서태수 김미영 양희진 김태형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May 3, 2009



< 해질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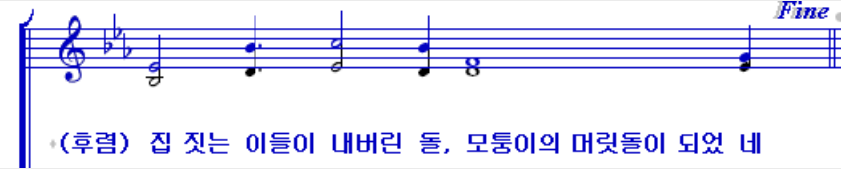
세노(1830-1906), 유화, 개인소장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4,8-12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화답송



제 2 독서 요한1서 3,1-2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0,11-18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423단	33명
이호영	450 단	4명	19,319단	127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450단	4명	2/22/04 - 4/26/09 (271주)	

총누계: 213,442단 12,761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5월3일	5월10일
해설자	박귀영	김오경
독서/봉헌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128 ♪ 봉헌: 217
 ♪ 성체: 167 170 ♪ 파견: 132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내 말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장남이 신학생인데 둘째 아들마저 신학교를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에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안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행어 아버지가 들으실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네가 잘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결국엔 어머니의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행로를 정할 수 있었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제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겠다는 너를 말린 것이었다. 그러니 오해는 말아라.”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족한 내가 지금까지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은인을 덕분이다. 특히 하늘 나라에 계신 부모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소개하신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품삯만을 위해 일하는 삯꾼들과는 다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성소란 무엇인가? 성소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룩한 부르심을 말한다. 사제, 수도자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도 있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삶도 성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소주일이다. 우리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 수확할 일꾼을 보내 주십시오 청해야 한다(마태 9,37-38 참조). 그러나 단순히 성소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2코린 2,15)를 지닌 사제와 수도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일생을 오로지 하느님 나라를 위해 바친 사람이다. 그래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1코린 9,22)이 되기 위해 ‘착한 목자’처럼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목숨을 바칠 각오로 앞장서야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사제는 바로 착한 목자이다. 그러나 사제도 나약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안고 있다. 그래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신자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오늘날도 하느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더욱 더 내어놓을 젊은이들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소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 전체가 성소 계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성소 계발은 단순히 교회의 몫만이 아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당에서는 매년 한 명 이상의 젊은이를 성소자로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어떨까? 물론 신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는 절대적이다. 신부님들이 성소자 계발에 관심이 있는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